

도내 혼족 증가... 40-50대 남 급증

'1인 가구' 비율 29.8% · 2인 가구도 29.1%... 50대 · 70세 이상 가구주율 상승 추세

전북지역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주거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30-50대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로 본 전북지역 가구(家口)와 성씨(姓氏) 통계지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1인 가구는 29.8%에 달한다. 10가구 중 3가구는 홀로사는 집이란 의미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지역 평균 가구원 수는 2.42명이며, 주된 가구 유형은 1인가구(29.8%)로 조사됐다.

14개 지자체 중 전주시가 평균 가구원 수가 2.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실군이 2.20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29.8%)이나, 2인 가구(29.1%) 역시 이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3인 가구(18.9%), 4인 가구(15.4%), 5인 이상(6.8%)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는 2인 가구, 2005년에는 4인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5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가구유형도 1인 가구(3.3% 증가)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줄어든 가구유형은 4인 가구(7.1%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1인 가구의 현황을 들여다 보면 20대와 40대, 50대의 1인가구 비율이 각 1만9,000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60세 이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송하진 지사 시방역상황실 방문

송하진 지사는 26일 전북도청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찾아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비상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성과 연령별로 나눠 보면, 50대 이하 1인가구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60세 이상은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1인 가구는 순창군(33.4%), 고창군(33.1%), 부안군(32.8%) 순으로 높았고, 전주시(27.9%), 군산시(29.3%), 완주군(29.7%) 순으로 낮았다.

연령별 1인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와 익산시는 20대가 각각 20.3%, 21.7%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

를 비롯한 11개 지자체는 70세 이상의 1인가구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여성 가구주 비율은 29.6%로 2010년 대비 3.6% 증가했고, 전라북도 여성 가구주 비율은 32.4%로 2010년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도내 일반 가구도 71만7,000가구로 2010년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가구주 비율은 50대가 16만가

구(22.3%)로 가장 높았는데, 50대와 70세 이상 가구주율은 상승하는 추세이고, 30~40대 가구주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씨로는 김씨가 38만2,000명(21.2%), 이씨가 25만1,000명(13.9%), 최씨는 14만7,000명(8.1%) 순이었다. 뒤를 이어 최(崔), 정(鄭), 강(姜), 조(趙), 임(林), 장(張), 오(吳) 순으로 조사됐다. /인재용 기자

도, 현장중심 원가심사로 예산 563억 절감

전북도가 현장중심 맞춤형 원가심사를 통해 약 56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도에서는 그동안 30억원 이상 토목공사에서 추진한 현장심사 의무화 사업장을 올해부터 2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로 확대 운영했다.

이 결과 상하수도, 하천, 도로, 건축 등 1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47억원(전체 절감액의 62%)을 절감하는 물론 현장에 적합한 공법 등을 반영해 시공품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더불어 최근 3년 동안 지역제품사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타 지역생산 제품으로 반영돼 있던 합성목재, 파고라, 강관과일, 수배전반 등 98건 77억원을 도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변경 조정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요

기회를 확대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및 현장과 설계도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 49건을 설계에 반영했고 설계도서 수량 및 법정경비 등이 과소 계상된 경우 7건에 대해 3억3600만원을 증액해 견실시공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전북도는 원가심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9월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설계용역사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심사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전북도 원가심사 운영현황,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한 전문분야 지식향상,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품셈 적용오류 및 원가심사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인재용 기자

싱가포르대사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완료

외교부와 전북도, 전주시 협력사업인 2016년도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의 마지막 대상인 주싱가포르대사관 연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은 무실역량의 자세로 전북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한지산업 활성화와 한지 연계산업의 동반 성장 및 전북의 한스타일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은 민원실을 주 연출 공간으로 하고 이용객의 편리함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일거양득의 컨셉으로 연출했다.

한루 평균 80~100여명이 방문하는 민원실에 즉석사진촬영 공간을 한국 전통적자 창살의 포토큐브를 만들어 여권사진 촬영 공간이자 외관을 활용한 한국 문화 포토존으로 구성해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민원실 벽면에는 달항아리 패턴의 한지보드를 모뎀화해 대형 한지 조형물을 설치했다. /인재용 기자

실을 주 연출 공간으로 하고 이용객의 편리함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일거양득의 컨셉으로 연출했다.

한루 평균 80~100여명이 방문하는 민원실에 즉석사진촬영 공간을 한국 전통적자 창살의 포토큐브를 만들어 여권사진 촬영 공간이자 외관을 활용한 한국 문화 포토존으로 구성해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민원실 벽면에는 달항아리 패턴의 한지보드를 모뎀화해 대형 한지 조형물을 설치했다. /인재용 기자

자연재해 피해, 30년간 대비 33% 감소

도, 10년간 재해예방사업 결과

전북도가 재해위험요인 사전 해소와 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한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과거 30년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예방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존재하는 지

역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10년 동안 1조1,422억원을 투자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소하천 정비 등의 재해예방사업을 펼쳤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총 5개사업에 1,642억원을 투자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율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시설 배출특성 연구 실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총탄화수소류(THC) 관리를 위해 배출특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오존 전구물질인 유기용매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THC에 대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진한다.

도장시설, 인쇄전자, 시멘트제조 업종에서는 THC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나, 기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유기용매(톨루엔 등)를 사용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도내 30개소를 선정해 THC 실측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기여율을 파악해 관리방안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정책제안을 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도민들에 유용한 달라지는 제도 · 시책 '한눈에'

도,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등 내용 담아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지진대비, 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시 지방세 감면, 전북 지역 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등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먼저 내년 1월부터 빈 용기 보조금제도 개선에 따라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조금이 인상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에서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광역 도 단위까지 확대돼 절차에 따라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 취득시 취득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돼 지원대상 차종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주차장,공동주택 등을 신규 건축시에

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도 촉진된다.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가 4,50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직종이 14개 직군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학대 예방정책이 강화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원스톱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에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본격 운영되고, 2017년 전북방문의해 운영을 위해 5대 분야 30개 전라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 부동산, 복지, 환경, 관광 등 9개 분야에 98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9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12건, 문화,체육,관광 5건, 복지,여성,보건 11건, 환경,복지 14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7건, 일반행정,법무 7건 등이다.

특히,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고 핵심사항은 별도로 정리해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왔다.

도는 이 책자를 배포해 각 시,군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할 계획이며, 책자를 도 홈페이지(www.jonbuk.go.kr)에 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희망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명단

▲정읍시 정무원(12월 26일)

- △삼산마을 102,000
- △송배마을 127,500
- △신제마을 76,500
- △외장마을 132,600
- △우산마을 86,700
- △정도마을 137,700
- △창남마을 178,500
- △천두마을 132,600
- △초연마을 51,000

**계 1,085,100원

▲임실군 신덕면(12월 26일)

- △학산마을 78,000
- △울치마을 87,000

**계 165,000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